

## 청소년 자녀 교육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조명

전 형 준\*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자녀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조명하는데 있다. 청소년 자녀교육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발달상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가정의 의미, 청소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청소년 자녀교육을 위한 전략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교육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가정은 기초적인 교육의 장이며, 신학적인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 구속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특징과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청소년은 마음의 문제에 둔감함으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자녀양육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전략에서 첫째, 계획이 있는 자녀양육을 할 것, 둘째,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것, 셋째, 십대들을 회개로 이끌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1단계: 심사숙고, 2단계: 고백, 3단계: 서약, 4단계: 변화의 단계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청소년 자녀교육을 위한 성경적 상담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청소년, 가정, 자녀교육, 부모역할, 기독교상담

---

• 논문 투고일: 2010년 03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05월 13일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0년 04월 22일

## I. 여는 글

많은 부모들은 십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험한 세대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아무 문제없이 그저 무사히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Paul D. Tripp<sup>1)</sup> 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키우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서는 최악의 사태를 예견하며, 몇 년만 지나면 이 귀여운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흉측한 괴물로 바뀔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sup>2)</sup>

Tripp 이 지적한 것처럼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생각이 십대 청소년 자녀들에 대하여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서 유행하는 두려움이나 냉소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십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 시기를 단순히 무사히 지나가는 것 뿐 이라면, 이것도 왜곡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십대 청소년들에 대하여 말할 때 발달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그들을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는 반항적이고 열정적인 호르몬의 집

1) Paul D. Tripp 박사는 필라델피아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글렌사이드에 위치한 CCEF(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 기독교 상담 교육재단)에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기관의 '삶을 변화 시키는 사역'의 총 책임자이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에서 유명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War of Wars,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이 있고,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에 많은 기고문을 썼다.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으며, 아내 루엘라와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Paul D. Tripp,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2004), 17-18.

합체이며, 무분별하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관점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sup>3)</sup>임에 틀림없다.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대 청소년의 시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sup>4)</sup> 그러므로 십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관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진단하고, 성경적인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십대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어찌 할 바를 몰라 하며, 그들의 생물학적 변화로 인하여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에 대하여 올바른 기독교 상담학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십대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녀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독교 상담의 관점, 특히 성경적 상담<sup>5)</sup>의 관점에서 가정의 의

3) Tripp, *Age of Opportunity*, 19-20.

4)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경적 상담』 (서울: 쿰란출판사, 2009), 173.

5)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은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상담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CCEF가 상담 원리로 삼고 있는 상담방법이다. 이 상담은 한 세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목회상담학이 심리학 중심으로 되어왔던 흐름에 반대하여 비기독교적인 심리학의 확산을 막고 비성경적인 상담학의 범람을 제어하면서 복음의 확산과 인간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신학중심의 상담학이다. 현재, David Powlison, Edward Welch, Paul D. Tripp, Timothy S. Lane 박사가 '성경적 상담학과' 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고, Jay E. Adams, John Bettler 박사가 초석을 놓았다. 참고. David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3); Paul D. Tripp, *Instrument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2); Timothy S. Lane & Paul D. Tripp, *How People Change*, 김준수 외 역, 『사람은 어떻게 변화 되는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최근에 2010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에서 개혁신학의 기초를 세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내용과 성경적 상담 원리가 서로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즉, 성경적 상담 원리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인간관과 신학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참고. 전형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성경적 상담원리”,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재조명, 2010. 4. 10.: 39-55.

미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십대 청소년 자녀 교육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십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위기의 세대로서의 십대가 아닌, 기회의 세대로서의 십대로 양육 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청소년과 자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청소년과 자녀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어 왔다. Haim Ginott 는 ‘인본주의적 자녀교육방법’을 제안 하였다.<sup>6)</sup> Ginott는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자녀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시카고 대학 교수인 Thomas Gordon은 ‘민주적 인간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부모의 효율성 훈련 이론을 통해 본 자녀교육 방법이다. 그는 PET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sup>8)</sup> Erick Berne은 ‘상호교류분석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녀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든 인간은 자극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전제하고, 자녀의 생의 형태는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와 친구관계에서 쓰다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Watson은 ‘행동수정이론’을 적용한 자녀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녀의 부적응 행동은 재훈련하고,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처벌을 통하여 좋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였

6) Haim Ginott 박사는 미국심리학회, 미국 집단정신 요법학회, 국제 Pen 협회의 회원이다. Ginott 박사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저술로서 유명하며, 그의 저서는 18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7) 광덕영·김미화, 『부모 교육론』(서울: 형설출판사, 1994), 14-18.

8) 광덕영,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백목출판사, 1985), 322-323.

다. Dreikurs는 ‘민주적인 훈련’을 통한 자녀교육 방법을 주장 하였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문제해결력과 기술이 부족한 데 있다고 보면서, 부모의 과거 권위적 양육방식은 비효율적이므로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Dreikurs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연구회”<sup>9)</sup> 통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sup>10)</sup>

김형태는 『21세기 자녀교육』<sup>11)</sup>에서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성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룰 요인으로 1) 도덕성 2)사회성을 들었으며,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서 1)청소년 인성발달 특성에서 ①사회 심리적 측면과 ②청소년복지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2)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제안을 하였는데, ①학교교육 기능의 회복 ②학교와 청소년 관련 연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③대안학교의 활성화를 주장 하였다. 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1)입시위주교육 2)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 3)학교교육의 잠재적 기능 4)재정 및 시설의 부족 5)교사의 사명감 부족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1)인성중심의 학교로 변해야 한다 2)부모교육이 필요하다 3)교사가 바로 서야 한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sup>12)</sup> 이 연구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을 지적한 것과,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 내용이다.

정원식·김재은·박성수는 『이 시대의 자녀교육』<sup>13)</sup>이란 책을 출판 하였는데, 박성수는 “청소년기 자녀교육의 새로운 방향”<sup>14)</sup>이란 글에서 1)통제 중심

9) 부모연구회(Parent's study group)는 8-12명으로 구성된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부모연구회의 부모교육은 8-12주간, 매주 1회에 2시간씩 시행한다. 이 모임에서는 Dreikurs의 저서에 기록된 양육원칙이 다루어지고 개개인의 문제도 토의한다. 프린트를 배부하고, 숙제를 내주어 배운 개념들을 확실히 기억하게 한다. 늘 인도자가 있으나 전문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중개자, 촉진자, 안내자의 기능을 한다.

10) 광덕영 · 김미화, 『부모 교육론』, 14-33.

11) 김형태, 『21세기 자녀교육』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2002).

12) 김형태, 『21세기 자녀교육』, 91-115.

13) 정원식 외,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14) 박성수, “청소년기 자녀 교육의 새로운 방향”,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299-377.

의 교육 방법에서 능력배양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하고 2)지적 능력 중심의 교육에서 도덕적 인격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3)전수 받는 교육에서 창조해 내는 교육으로 전환 4)습관으로서의 자녀교육에서 예술적 창조로서의 자녀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하였다.<sup>15)</sup>

박성수는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기의 특징들”을 1)자아정체 의식의 발달 2)신체적 발달과 성적 행동 3)교우 관계의 변화 4)반항과 부모에 대한 실망 5)세대 간의 격차 6)정신적 역동의 세계 7)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방언기제라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주요 문제들로서 1)공부에 대한 중도 포기 2)여러 비행들 3)학교성적의 부진 4)가출 5)약물남용 6)자살충동과 자살 7)도발적 거부장애를 예로 들었으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멋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길러야 할 것을 제안 하였다. 1)불굴의 용기를 기른다 2)발전의 의지를 기른다 3)창조적 지혜를 기른다.<sup>16)</sup> 이 글에서 자녀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즉 “능력배양 중심교육, 도덕적 인격중심의 교육, 창조해 내는 교육, 예술적 창조로서의 자녀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은 큰 공헌이라 하겠다. 또한,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의 특징과 주요 문제들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교육하는데 깊이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박영신·김의철은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sup>17)</sup>에서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sup>18)</sup>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320명씩을 표집 하였다. 측정 변인으로 고마움, 존경심, 죄송함, 친밀감, 갈등, 거리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

15) 박성수, “청소년기 자녀 교육의 새로운 방향”, 299-315.

16) 박성수, “청소년기 자녀 교육의 새로운 방향”, 316-377.

17) 박영신·김의철,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2004).

18) 박영신·김의철,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2004), 231-305.

고, 그 다음으로 존경심을 많이 느꼈으며,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친밀감 또한 높았다. 반면에 부모와의 갈등이나 거리감은 매우 낮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갈등이나 거리감은 적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하면 아버지 보다 어머니에 대하여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심도 높고 죄송함과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가 강하였다.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어머니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았다.<sup>19)</sup>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면서 특히,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동시에 어머니와의 갈등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아버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님이 고마운 이유에 관해서는 아버지에 대하여는 가족을 위한 고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어머니에 대하여서는 어머니의 희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정서적 지원이 세 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sup>20)</sup>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고생, 어머니의 희생에 대하여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즉, 청소년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먼저 아버지의 역할로는 가장으로서 충실한 모범적이고 성실 근면한 아버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과 대화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아버지,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아버지상을 원했다. 어머니의 역할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 집안일에 충실한 어머니,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며,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존중해 주는 어머니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며, 대화를 통해 존중을 받고 싶어 하

19) 박영신 · 김의철,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239-240.

20) 박영신 · 김의철,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241-244.

21) 박영신 · 김의철, “한국인의 가족 역할 인식을 통해본 부모자녀관계”,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2004), 309-350.

는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Elder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일곱 가지 유형의 부모역할을 분류하였다. 1) 독재적: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갖지 못한다. 2) 권위주의적: 청소년들의 의견표현은 허용되나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3) 민주주의적: 청소년과 부모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공유하나,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내린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평등주의적: 청소년과 부모는 동등한 지위와 힘을 가지며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5) 허용적: 대부분의 결정은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부모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내어놓는 역할을 한다. 6) 방임적: 청소년 스스로 생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 부모는 단지 사소한 일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나 부모의 의견은 청소년 자녀들에 의해 자유롭게 무시될 수 있다. 7) 무시하는: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sup>22)</sup>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 유형은 자녀수가 많은 가족일수록, 수입이 적은 계층일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성은 상이한 부모 역할 유형을 사용한다. 남성들은 독재적 혹은 권위주의적 양식과 같은 엄격한 부모역할 유형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들은 칭찬이나 긍정적 강화와 같은 애정 지향적 접근방법을 선호한다.<sup>23)</sup> 미국의 중류계층 부모들은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혹은 허용적 부모역할 유형을 많이 채택한다.<sup>24)</sup> 그들은 자녀들을 설득하고 그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기규제를 획득하고 개인적 자율성과 자아 존중 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미국의 중류계층부모들은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가족 응집성을

22) G. Elder, "Structural Variations in the Childbearing Relationship," in *Sociometry* (New York: Norton, 1962), 25.

23) 경연숙,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5), 240.

24) J. J. Bigner, *Parent-Child Relation: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3rd ed. (New York: Macmillan, 1989), 9.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된다.<sup>25)</sup> 여기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조옥라는 “전통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1) 자녀양육의 역할을 첫째로 들었고 2) 유산전달의 역할 3) 교육자의 역할 4) 모범의 역할 5) 권위의 역할을 들었다.<sup>26)</sup> 이동원은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에서 1) 양육의 역할 2) 훈련의 역할을 들었다.<sup>27)</sup> 조옥라와 이동원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부모의 첫 번째 역할은 자녀 양육의 역할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정정숙은 『성경적 가정 사역』<sup>28)</sup>에서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sup>29)</sup>에 관하여 연구 하였는데, 1) 부모의 직무는 ① 왕적 직무 ② 선지자적 직무 ③ 제사장적 직무가 있으며, 2)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전제한 뒤, 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기본명제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 받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sup>30)</sup> 이 연구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3) 부모의 역할로 ① 교사의 역할 ② 상담자의 역할 ③ 삶의 지도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sup>31)</sup> 특히, 상담자의 자질은 ①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야 하고(골 3:16), ② 선하여야 하며, ③ 지혜가 있어야 하고, ④ 상담과 전문훈련이 필요하고, ⑤ 소망의 사람이어야 하며,

25) 경연숙, 『가족심리학』, 240.

26) 조옥라,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위원회 편, 『부모 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창지사, 1988), 21-30.

27) 이동원,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위원회 편, 『부모 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창지사, 1988), 39-49.

28)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4).

29) 정정숙,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4), 217-234.

30) 정정숙,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229-230.

31) 정정숙,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230-233.

⑥ 확신의 사람이어야 한다<sup>32)</sup>고 강조 하였다.

Rich Van Pelt 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위기상담』<sup>33)</sup>에서 부모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는데,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의 밤 행사와 청소년 부모집단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같이하게 하고 가족회보와 청소년 그룹비상 연락망을 작성하고 심방할 것을 제안 하였다. 부모를 돕기 위해서는 특별 좌담회와 청소년 부모를 위한 강좌, 지원그룹, 부모자녀 대화의 광장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4)</sup> 이 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의 광장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Merton P. Strommen 은 *Five Cries of Youth*<sup>35)</sup>에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섯 가지 외침으로 요약하였다. ① 개인적인 실수, 자기 확신의 결여, 학업성적, 이성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기증오의 외침 ② 가족갈등과 분열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아의 외침 ③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도움, 기성세대 에 대한 비판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외침 ④ 자기중심적이고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으로 인한 편견적 차별의 외침 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활동, 바른 삶의 발견 등으로 인한 기쁨의 외침이다. 홍인중은 이러한 외침은 자긍심, 가족사랑, 사람의 복지, 개인적인 유익,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픈 욕구라고 해석 하였다.<sup>36)</sup>

오윤선은 『청소년 세대진단과 이상행동 치료』<sup>37)</sup>에서 청소년의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고대의 청소년을 청소년 연구의 태동기, 중세의 청소년을 잊혀진 청소년, 근대의 청소년을 청소년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현대의 청소년을 신세대 등장으로 정의하고, 특히 신세대의 세

32)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64-66.

33) Rich Van Pelt, *Intensive Care Helping Teenagers in Crisis*, 오성춘·오규훈 역, 『사춘기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34) Pelt, *Intensive Care Helping Teenagers in Crisis*, 207-250.

35) Merton P. Strommen, *Five Cries of Youth*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 1988).

36) 홍인중, 『청소년 위기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17.

37) 오윤선, 『청소년 세대진단과 이상행동 치료』 (서울: 예영 B&P, 2010).

대별 명칭의 변화를 X세대, Y세대, Z세대, N세대, M세대, C세대, G세대, E세대, @세대, W세대, P세대, U세대, Digital Nomad세대, Na세대, Ubi-Nomad세대, Neo-W세대, WANT세대, Web2.0세대로 말하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세대의 특성 코드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세대진단에서 정보홍수시대에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청소년, 속도시대 방향성의 문제, 정보가 아닌 감동에 의해 변화되는 청소년, 귀로 먹는 보약이 필요한 세대라고 진단하면서 지적보다는 격려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sup>38)</sup> 이 연구에서 청소년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그들의 문화와 세대 특성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과 자녀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 교육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교육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조명을 통하여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2. 청소년기의 발달상의 문제

심리학자 Armand Nicholi 가 “청소년기는 혼돈과 도전과 좌절 그리고 흥분이 있는 인간 발달 단계이다”<sup>39)</sup>고 말한 것처럼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의 기질은 가족과 지역사회, 살고 있는 나라, 심리학 적 기질, 개성, 문화, 또래집단과 종교심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dolescence’ 라는 단어는 ‘성숙을 향해 성장 하는 시기’ 를 의미 한다.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까지 계속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적, 성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으로 변화 하는 시기이

38) 오윤선, 『청소년 세대진단과 이상행동 치료』, 17-45.

39) Armand M. Nicholi, Jr., ed., *The Harvard Guide to Modern Psychiat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519.

다. 부모에게 의존하던 삶과 가족의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사회적 생산성으로 전이해 가는 과정이다.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청소년기의 친구들, TV, 비디오게임, 전자기기들, 음악, 스포츠, 공부, 직업들, 취미, 자극이 동반되는 성적 활동들,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들에 둘러 싸여 있다. 청소년기는 또한 영적 세계와 가치관, 인간관계와 인생목적에 대하여 반항적 사고를 하게 되는 시기다. 혼돈과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미성숙한 젊은이들은 과업 성취가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어한다.<sup>40)</sup>

Stanley Hall<sup>41)</sup>은 청소년 시기를 폭풍과 스트레스의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급속한 성장과 잦은 변화의 시기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은 그다지 요란하지도 않고, 크게 혼란스럽지도 않으며 충동적이지 않고, 부모의 가치관에 많이 저항하지 않으며, 반항하는 것도 아니다.<sup>42)</sup> 오히려, 청소년들의 10-20% 정도는 청소년기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지만, 이 비율은 어린이나 어른들이 반항 하는 숫자와 비슷하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본다면,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아니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별 어려움과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게리 콜린스

40)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rev. 3rd ed., 한국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 역,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2008), 269.

41) Stanley Hall은 미국 심리학의 선구자이며 미국심리학회와 초대 회장이었다. 그는 청소년의 시기를 폭풍과 스트레스의 시기라고 묘사 했는데, 그의 작업들은 10대들을 이해하고 상담하도록 돕기 위한 많은 다른 연구 조사들을 유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42)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69. Joseph Adelson, "Adolescence and the Generalization Gap," *Psychology Today* 12 (February 1979): 33-37에서 재인용. Collins는 이러한 Adelson의 결론은 20-30년 이후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지적함으로써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43) S. I. Powers, S. T. Hauser & L. A. Kilner, "Adolescent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989): 200-208; G. I. Welton, "Adolescence,"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eds. D. G. Benner & Peter C. Hill (Grand rapids, MI.: baker, 1999), 46-48.; D. L. Evans, E. B. Foa, R. E. Gur, H. Hendin, C. P. O'Brien M. E. Seligman, & B. T. Walsh, *Treating and Preven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Dis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5), 497-527.

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상담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청소년들의 80-90% 정도는 심각한 혼란을 겪지 않고, 특별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단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거나 이상한 괴물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Gary R. Collins<sup>44)</sup>는 청소년기를 3 단계로 나누고 있다.<sup>45)</sup> 초기 청소년기는 약 10-11세에 시작하며 최소 2년 정도 지속된다. 중기 청소년기는 약 14-18세의 고등학교 학생들, 후기 청소년기는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포함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시작되면서 불안과 걱정, 방황, 기쁨의 감정들이 교차된다. 남자와 여자 모두 급격한 성장으로 팔다리가 자라서 어색하고 건들거리는 모습이 되며, 소년은 어깨가 넓어지고 근육이 두꺼워지며, 소녀는 엉덩이가 커지며 가슴이 발달하는 등 신체구조의 변화가 따른다. 남성은 변성기가 오고 성적 기관들이 확장되며, 성호르몬이 증가되고 활발한 침샘활동으로 피부 숨구멍 크기가 커지며, 얼굴과 몸에 털이 난다. 여성은 월경이 시작되면서 감성적 적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사회적, 신체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시기에 겪는 사회적 적응과제는 학교 전학으로 인한 불안, 친구들과의 사귀고 압력, 이성교제, 영웅 숭배 등이 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가족 간의 갈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자기 비난과 반영적 사고는 부모 가치관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근심과 걱정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 모두는 또래 친구들의 영향이 크다. 중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는 비교적 적으나 자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즉 성인의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의

44) Gary R. Collins 박사는 퍼듀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담심리학자이다. 일찍이 *Psychotherapy Networker* 에서는 그를 “기독교 상담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월간 *Moody* 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주의 상담학계에 내려 주신 선물”이라고 소개 했다. 콜린스 박사는 미국 트리 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한 교수이다. 미국기독교상담자협회(AACC)의 창설자이자, 월간 *Christian Counseling* 의 초대 편집자이며 크리스천 코칭을 비롯한 50권이 넘는 책의 저자이다. 시카고 근교에 살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기독교 상담에 대하여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애틀란타에 있는 심리학연구대학원의 교수이다.

45)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69-271.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소년에게 성적 충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또래 친구들의 압력과 친한 친구에 대한 친밀감의 욕구, 성적 유혹에 대한 사회적 허용들을 억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하여 10대 임신과 성병들이 증가 하고 있다.<sup>46)</sup> 또래집단의 압력은 부모의 영향과 가치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가 아직도 용돈과 교통편, 살집을 제공하며 음식을 주고 빨래를 해주지만, 10대들은 자주 부모의 기준과 가치관을 비판하며, 더 이상 부모를 따라 교회나 휴가, 쇼핑을 가려 하지 않는다. 집에서 대화는 최소화하면서,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떠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인터넷 게임을 즐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영웅들, 음악, 옷 입는 스타일, 오락의 형태 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때로는 그들 특유의 정체감을 유지하기 원하며 자신의 문화 안에서 개별성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성과의 데이트는 매우 중요하며, 헤어짐은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이 시기의 중요 이슈는 성과 마약, 자동차와 운전기술<sup>47)</sup> 등이 포함 된다. 청소년의 이슈는 또래의 압력과 신체적 변화, 불안정과 정체성의 혼돈과 연관이 있다. 사랑과 수용에 대한 욕구, 성 호르몬의 영향, 사회의 성 개방, 영화와 TV에 나타난 가치관, 사적인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경험하며, 이것은 죄책감과 자책, 임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술을 포함한 약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 경험과 게임중독, 대화방을 통하여 낯선 사람과 대화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숨겨진 또래의 압력들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직면해야 할 심각한 도전들이다.<sup>48)</sup> 이처럼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의 가치관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하며,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46)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0. G. Barna, *Real Teens: A Contemporary Snapshot of Youth Culture* (Ventura, CA.: Regal Books, 2001)에서 재인용.

47)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는 자동차와 운전기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나, 미국의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이 되면 자동차와 운전면허 취득에 큰 관심을 가지며, 실제로 많은 고등학생이 자신의 차를 스스로 운전하여 학교에 통학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표현한 내용이다.

48)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0.

바나(Barna) 연구팀은 십대들을 네 종류의 특성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10대 인구의 절반은 상호 관계이다. 그들은 아주 매력적이며,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민감하다. 문제해결에 대하여 편안하게 접근하며 살고, 스트레스를 기꺼이 수용하며, 최소한의 영향을 받으려 한다. 둘째, 10대의 4분의 1은 매우 역동적이다. 그들은 공격적이며, 집중하고, 돌진하며, 평균이상의 생산성이 있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사들이다. 많은 에너지와 경쟁력, 자기 확신 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셋째, 청소년의 5분의 1은 안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속성과 충성심, 완전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고집이 있고 창조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 넷째, 평가자들은 최소 그룹이다. 그들은 세부적인 것을 좋아하며, 정확도와 완전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완벽주의자들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요구를 한다. 이 연구팀에 의하면, 10대들의 90% 정도는 미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만, 대학과 직업에 대한 생각, 집을 떠나는 일,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 등 미래에 대한 준비는 소홀하다.<sup>49)</sup> 후기 청소년기는 10대 후반에 시작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보통 미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있다. 성인사회의 진입과 성인으로서의 책임, 보다 독립적인 생활 방식의 과업들이 주어진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교육, 직업에 맞는 교육 등을 계획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한다. 이제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면서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된다.<sup>50)</sup> 이처럼 청소년의 시기를 전기와 중기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의 특성과 해결과제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깊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청소년기는 최소한 네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각각의 문제들은 과거에도 생각해 왔지만 청소년기 후기에 좀 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49)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0-271. www.barna.org, October 8, 2001에서 재인용.

50)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1.



흥내를 내며 자신을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과 동일시한다. 나중에는 그들이 존경하는 성인을 본받아 자신의 행동 모델로 삼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자신의 자아정체성과 개별성, 가치관,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고자 고민하게 된다. E. H. Erickson<sup>51)</sup>은 청소년기의 위기는 정체감 대 역할 혼미라고 설명 하였다. 정체감은 자기에 대한 통합된 느낌을 나타낸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역할 혼미라는 말은 모든 자기는 때때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모순이 크면 클수록 그 양상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에릭슨의 견해에 따르면, 정체감은 사적인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의 결합에서 생겨난다. 그는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정체감이야말로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 주요 과제라고 보았다.<sup>52)</sup> 둘째는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리며 지내야 하는가?" 남자와 여자, 즉 다른 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며,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를 변화시켜 부모에게 덜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기술들은 사회적응 기술로써 의미 있는 관계 형성 기술, 권위자들과의 갈등해결, 패거리를 짓는 집단행동,

51) Erickson은 1902년 독일에서, 덴마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전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를 버렸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내과 의사 세도어 홉 버거와 결혼 했다. Erickson은 수년 동안 홉 버거가 그의 친 아버지라고 생각 했는데, 후에 이것을 '사랑의 기만' 행위라고 말하였다. 청소년기에 그는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정체감 혼란은 자신의 조상이 독일인이 아니고 덴마크 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 20대 초반에 유럽에서 방황했을 때, 정체감 결여의 느낌은 깊어 갔다. 그는 비엔나에 있는, 프로이트 환자들과 친구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에서 교사직을 얻었다. 그곳에서 안타 프로이트를 포함한 정신 분석가들과 친해졌다. 1933년에 홉버거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아동분석가로서 개업을 하였다. 1939년 미국시민이 되었다. 그 당시 Ericks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는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주창하였고, 정체감의 획득과 유지를 성장을 위한 중대한 과제로 삼았다.

52) Charles S. Carver & Michael F. Scheier, *Perspectives on Personality*, 김교현 외 역,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434-435; E. H. Eric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참조.



성관계, 영웅숭배, 친구관계, 성인의 제안에 거부하기, 또래 압력에 양보하기 등이 있다. 셋째는 미래에 관한 질문이다.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들과 가치관, 성격, 가능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의 기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직업 선택은 청소년에게 어려운 결정이다. 왜냐하면 여러 번 잘못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이상적이며 때로 너무 낙관적이어서 비현실적인 직업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좌절하고 비관적이 되며, 비로소 재평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넷째는 이념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다. 영성은 이 시기의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이다. 많은 십대 청소년들은 종교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조직적이고, 교단 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종교에 대한 불신은 더 깊다. 어른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스스로 영적인 문제들로 고민한다. 무엇을 믿으며, 왜 믿는지를 찾기 위해 젊은이들은 심각하게 그들 세대에게 질문해 왔다.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적인 믿음, 인생의 철학을 발전시켜 왔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부모들이 두려워 해 왔지만, 부모들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sup>53)</sup>

이처럼 Collins가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네 개의 중요한 질문으로 설명한 것은 탁월하다. “나는 누구이며,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야 하며,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관계와 미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종교적인 질문에 이르기 까지 청소년기에 그들의 관심을 잘 드러내 준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3. 청소년 자녀 교육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조명

#### 1) 성경적 가정의 개념

Tripp은 “성경적 상담에서 성경으로 상담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구절들을

53)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2.

인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담에 있어서 전체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sup>54)</sup>이라고 하였다. Powlison<sup>55)</sup>은 그의 저서 *Seeing with New Eyes*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상담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다.<sup>56)</sup> 즉 성경적 상담에서는 전체 성경이 무엇을 말씀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주제이다. 가정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은 ‘가정의 가치’ 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 아래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가정의 개념을 말하고자 한다. Tripp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sup>58)</sup>

성경적 가정의 개념을 말하려면 ‘하나님은 가정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정의가 자녀들과 그들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기에 중요하다. “하나님은 가정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십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물음의 기본 바탕이 된다. 먼저 부모로서 할 일을 바로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적절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54)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3), 24-27.

55) David Powlison은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B.A.)을 공부하였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M.Div.)을 공부하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CCEF에서 교수와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다.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의 편집인이기도한 그의 저서로 *Speaking Truth in Love; Power Encounter; Competent to Counsel?* 등이 있다. 그는 저술가일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 잘 알려진 성경적 상담학 강연자이다.

56)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9.

57) Tripp, *Age of Opportunity*, 57.

58) Tripp, *Age of Opportunity*, 58.

Tripp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가정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에 따라 가정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 정의에 따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선적인 배움의 장이다

사사기 2장 6-15절은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슬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땅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의 중요성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약속받은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10절). 가나안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모든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sup>59)</sup>

Tripp은 그 원인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지침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 가정의 기능은 ‘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터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60)</sup>

## 2) 성경적 가정의 역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우선적인 배움의 장이다”는 정의 아래 가정의

59) Tripp, *Age of Opportunity*, 59.

60)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경적 상담』, 157-158.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학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다. 즉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에 대한 학문이다. 가정이 이러한 신학적인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보여 주는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진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을 수평적으로, 단지 이 세상의 관계와 환경에 의해서만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항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해야 한다. Tripp은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자녀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에 분명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것과 그분께 속해 있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임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이 신학을 실행하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1)</sup>

가정이 신학적 공동체라 말하는 것은 부모가 항상 신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Tripp은 자녀들에게 신학적이 되어야 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을 네 가지로 말했다. 첫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그곳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부모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으로 향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둘째, 항상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데, 특히 십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십대들의 이야기를

61) Tripp, *Age of Opportunity*, 77-78.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그들에게 항상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매일의 삶의 순간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반응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넷째, 매일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뢰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서 신뢰는 십대 자신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순종은 모든 상황에서 십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묻게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루지 않고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sup>62)</sup>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자녀교육의 목적이 자녀들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는 일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sup>63)</sup>

이처럼 가정은 신학적인 공동체이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란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단순히 주일에만 신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일 매일이 신학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사회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

십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하심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필요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도 역시 부모들이 필요하다. 죄 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개 인주의자이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된 인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엡 2:3)이

62) Tripp, *Age of Opportunity*, 79-88.

63)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경적 상담』, 159-160.

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자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맞붙어 싸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화평하기보다는 분쟁하기를 더 잘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잘 한다(약 4:1-10). 연합하기보다는 분열하기를 더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성경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지 그분의 성품과 구원사역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예전의 종족과 성별과 나라와 계급에 의해 분리되었던 모든 차별들을 철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엡 2:11-22)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분의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자기 자신처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든 상황에서 확고한 생활방식이 되도록 가르치는 장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sup>64)</sup>는 Tripp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신들이 함께 살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 가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날마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다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들이다. 가정에서 그들의 욕심은 다른 사람의 계획과 충돌을 빚게 된다. 가정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sup>65)</sup>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기심이 많은 존재이나, 기독교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치고 그 다음은 사랑하라는 도덕적인 메시지를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sup>66)</sup>

64) Tripp, *Age of Opportunity*, 90.

65) Tripp, *Age of Opportunity*, 88-92.

66)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 주는 성경적 상담』, 161-162.

## (3) 구속적(redemptive) 공동체로서의 가정

거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이 가정이라는 배경 속에서 나타난다. 가정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소망이 깨어지며,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 타락이라는 험한 현실이 매일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다. 겸손하게 우리의 타락한 실체를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부모나 자녀 모두 우리가 스스로 죄인으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로 여길 때 가정은 은혜, 용서, 죄로부터의 구원, 화목, 그리스도안의 새 생명, 그리고 소망이 가정생활의 중심주제가 되는 진정으로 구속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sup>67)</sup> Tripp이 “가정이 구속적 공동체, 즉 복음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엮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열쇠는 자신의 잘못을 자녀들에게 기꺼이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부모들이다”<sup>68)</sup>고 본 것은 옳은 시각이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때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모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한 가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굳게 자리 잡을 때 죄는 그 본질을 드러낸다.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말씀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성령이 편안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는 성실한 부모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실 때, 늘 편한 것만 좋아하고, 교만하며,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의로움에 빠진 자녀들이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로 변해 가는 것이다.<sup>69)</sup>

가정이 대속의 공동체라는 것은 죄와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

67) Tripp, *Age of Opportunity*, 93-94.

68) Tripp, *Age of Opportunity*, 94-95.

69) Tripp, *Age of Opportunity*, 96.

다. 은혜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된다. 율법이 아닌, 인격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있다. 첫째, 용서이다. 둘째, 힘과 능력을 주신다. 셋째, 구원이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변할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해야 한다. 매일의 삶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 주어야 한다.<sup>70)</sup>

### 3) 성경과 청소년

청소년기의 개념은 19세기말에 아동 양육의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 했다. ‘청소년’ (Adolescent)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아동과 소년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었으나, 이들이 분리된 시기로 간주되거나, 그 시기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관하여 누가복음 2장 41-52절에 나타나는데,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을 때 예수님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청소년과는 달리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떠나 종교지도자들과 심오한 질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그 토론에 집중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 버렸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은 큰 걱정을 하였고,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다. 마리아가 예수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는가?”라고 물었다. 지금까지 죄가 없이 살아온 청소년인 예수님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면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성경은 청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70)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 주는 성경적 상담』, 162-163.

71)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3-274.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전 11:9-10). 이 말씀에서 청년에게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라고 말씀 한다. 특히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권면한다.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한다. 이 말씀에서 마음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면함으로써 젊은이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은 신학적인 공동체이다”라는 개념과도 맥이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성경을 통해 본 청소년의 특징과 부모의 역할

십대 청소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서 십대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성경은 젊은이들의 경향에 대하여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있다.

Tripp은 십대 청소년의 경향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7가지 특징을 소개 하였다.<sup>72)</sup>

첫째, 십대 청소년은 지혜와 징계에 대하여 무관심 하다는 것이다. 잠언은 지혜의 가치와 징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네가 인생에서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지혜를 취하라! 그것이 네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징계를 듣는 일과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72) Tripp, *Age of Opportunity*, 105-129.

짐승과 같으니라”(잠 12:1). 대부분의 십대들은 지혜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부모들은 지혜로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자녀의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부모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마 7:3-5). 부모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곳에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라. 그런데, 십대들은 다분히 방어적이다. 십대가 방어적이 될 때, ①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분명히 해두라 ② 자녀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라 ③ 자녀들에게 솔직히 내 죄를 고백하려고 노력하라. 방어적일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털어 놓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아가라. 십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며, 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을지라도 진실하게 지혜의 유익과 징계의 사랑이 나타나는 말을 하라. 자녀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자녀의 마음속에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를 하나님께 바라라.

둘째,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잠언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혹은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다. 잠언이 주는 것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두 가지 세계관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발견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인도받고자 하는 지혜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인도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은 겉으로의 행동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벧 후 1:4).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경건함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십대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율법의 문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로서 이러한 율법주의를 자녀에게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정신을 깨닫게 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반항심을 깨닫고, 진정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지혜롭지 못한 친구선택의 경향이 있다. 잠언에는 친구 관계와 우리

와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대한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십대들은 자신의 친구를 선택할 때 지혜롭지 못한 경향이 있다. 잠언은 옳지 않은 친구를 만났을 때, 길을 건너 다른 쪽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친구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십대 청소년은 자신은 친구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자녀의 친구에 대하여 말할 때, 신중함과 끝없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십대 자녀들은 지혜롭게 친구를 선택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친구 관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욕구, 동기와 선택과 행동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친구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은 성적 유혹에 취약하다.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는 성적 유혹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한다. 자녀들이 성적으로 순수하게 되기를 돕고자 한다면, 그 중요한 열쇠는 가능한 일찍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십대 시기에는 성적 깨달음과 유혹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바로 그때 많은 십대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버리는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성적인 죄를 은밀히 반복적으로 행하게 된다. 부모는 이 영역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정직한 질문과 인내심 있는 대화로 자녀들을 돌봐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은 종말론적인 전망이 부족하다. 종말론은 십대 청소년들의 신앙에서 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 내세에 누릴 기쁨을 기다리면서 살지도 않는다. 그들은 매우 현실 중심적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도 생각지 않는다.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는 추수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십대들의 관점에서는 생소하지만 중요한 영적원리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금 뿌리는 씨앗의 종류와 그 씨앗에서 나올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보

다 더 큰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심을 이해해야 하고, 다가올 그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유익한 관점을 통해 삶을 긴 안목으로 바라보기 위해 부모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의 투자임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언젠가 거두게 될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할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은 마음의 문제에 둔감하다. 잠언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에는 이런 경계의 말이 있다.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잠 4:20-22).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이것은 이런 뜻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중에서 너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라.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보호하며,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은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핵심이다. 아들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삶의 상황이나 관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더 깊은 대화, 즉 그 마음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 마음을 보지 못할 때 영적 소경과도 같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을 열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도록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 할 수 있다. 부모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히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의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끝으로, 청소년은 사방에 문제들이 열려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방에 열려 있다. 지혜와 어리석음, 율법주의와 경건, 친구관계, 성문제, 영원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깨닫는 것 등, 이 모든 문제들은 십대 시절에 살펴 보아야 하는 문제들이며, 주님의 사역에 대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주제의 대화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십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도우신다. 그렇지만 이 주제들은 자녀양육을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불안과 짜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다루면 자녀를 더욱 통제하려고만 할 것이다. 그러나 대신 부모로서 구원자이신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의 권능이 우리의 약하고 미흡한 부모로서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생명을 전해주는 자로서 부모를 사용하실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르익어갈수록 그 자녀가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성경을 통해 바라본 십대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부모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Tripp이 말한 것처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십대가 가진 문제를 바라봄으로 자녀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보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우리의 사랑스런 십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훌륭한 젊은이로 양육해야 할 것이다.

##### 5) 십대 양육을 위한 기독교 상담 전략

Tripp은 십대 청소년 자녀 양육을 위한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 하였다.<sup>73)</sup> 첫째는 계획이 있는 자녀 양육, 둘째는 지속적인 대화 셋째는 회개로 이끌기이다. 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계획이 있는 자녀교육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루하루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경고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획이 있는 자녀 양육’이라는 말은 초점이 있고, 목적을 추구하며, 자녀들과의 매일의 만남 속에서 목적지향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들과 그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양육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으며, 목적의

73) Tripp, *Age of Opportunity*, 295-321.

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시편 36편 1-4절은 계획이 있는 자녀양육에 대하여 놀라운 성경적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하니 저가 스스로 자궁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궤홀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로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여기서 '악인의 죄악'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십대 자녀들이 겪는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악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결핍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요, 나머지 한 가지는 '스스로 자궁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와 나타난 뜻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스스로 서약하며, 성경의 말씀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자녀 양육의 노력들이 세 가지 목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1)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2) 그들의 삶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며, (3)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경건함을 추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sup>74)</sup>

둘째는 지속적인 대화이다. 히브리서 3장 12-13절은 자녀들과 부모가 날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74) Tripp,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298-308.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  
을 면하라

이 말씀에서 십대 자녀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 악함에 대해 싸워야 하고, (2)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며,  
(3)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4)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  
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매일 피차 권면' 해야 하는데 이  
것이 지속적인 대화를 의미한다.<sup>75)</sup>

셋째는 십대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21절에서 이  
것을 설명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  
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  
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부모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모들  
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실현하시는 방법이다. 회개와 회복을 이끄는 네 단  
계가 있다. 1단계: 심사숙고, 2단계: 고백, 3단계: 서약, 4단계: 변화이다. 부모

75) Tripp,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308-314.

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진심으로 순종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자녀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백하고, 서약하고, 변화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모들을 사용하려고 택하셨다. 부모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자녀들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sup>76)</sup>

Collins는 청소년기 문제의 원인들로 신체적 변화, 성적변화, 대인관계 변화, 가치관, 도덕관, 종교적 믿음의 변화, 독립으로의 이동, 자존감 형성과 기술 습득, 미래에 대한 관심이라고 전제한 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먼저, 청소년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10대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기꺼이 상담을 받으려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단계는 (1) 관계를 형성하고, (2) 존경심을 가지고 감정을 표출하도록 한계를 설정하며, (3) 과거 어떤 사람에 관한 감정을 상담자에게 전가하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고, (4) 문제를 명료화하며, (5) 목표를 설정하고, (6) 상담자에게 말한 모든 내용은 비밀을 유지한다. 그러나, 자살시도, 마약중독, 과음 등의 문제는 예외일 수 있다. (7) 집단 상담을 할 수도 있다. 부모 상담으로는 (1) 지지와 격려보내기 (2)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의 역기능 문제를 다룬다 (3) 한계를 설정하고 여기에 융통성과 대화, 토의가 있어야 한다. (4) 부모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영성지도를 한다.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1) 영적 기초 쌓기 (2) 건강한 가족모델과 안정성 구축하기 (3) 교육하기 (4) 대인관계 지원 자극하기 (5) 직업선택과 이성교제, 정체성 개발 신앙생활 등을 지도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77)</sup>

10대 청소년의 자녀교육의 초점은 내재화인데, 청소년들은 훨씬 더 확장된 세상을 살고, 더 넓은 관계로 들어가며, 더 넓게 자신을 드러낸다. 이 단계에

76) Tripp, *Age of Opportunity*, 314-321.

77)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274-288.



서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줄때, 그 때부터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 단계에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내재화가 중요하다. 또한, 십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예방하는 관계, 교정하는 관계, 보호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건강한 관계는 예방하는 관계이다.<sup>78)</sup>

### III. 닫는 글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외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십대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관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청소년 자녀교육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과 자녀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발달상의 문제들과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의 가정의 의미, 청소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청소년 자녀교육을 위한 전략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교육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청소년들의 발달상의 문제들과 그들의 고민과 외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특히, 가정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이 기초적인 교육의 장이며, 신학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 사회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 구속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78)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경적 상담』, 173-175.

알았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7가지 특징과 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은 마음의 문제에 둔감함으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 자녀 양육을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전략에서 첫째, 계획이 있는 자녀양육을 할 것, 둘째, 지속적인 대화를 나눌 것, 셋째, 십대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1단계: 심사숙고, 2단계: 고백, 3단계: 서약, 4단계: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며,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이다.<sup>79)</sup> 그리스도의 대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방향을 보이시고, 보호하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부모로서의 할 일은 자녀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일군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들은 위기의 세대가 아니라 기회의 세대이다.

---

79)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160.

【 참고문헌 】

- 경연숙.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5.
- 곽덕영.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백록출판사, 1985.
- 곽덕영 · 김미화. 『부모 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 김형태. 『21세기 자녀교육』.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2002.
- 박성수. “청소년기 자녀 교육의 새로운 방향”.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박영신 · 김의철.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박영신 · 김의철. “한국인의 가족 역할 인식을 통해본 부모자녀관계”.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박영신 · 김의철. 『한국인의 부모 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이동원.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위원회 편. 『부모 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창지사, 1988.
- 오운선. 『청소년 세대진단과 이상행동 치료』. 서울: 예영 B&P, 2010.
- 오운선. “청소년 발달 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 오운선.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기독교 위기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2권(2009).
- 전형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는 성경적 상담』. 서울: 쿰란출판사, 2009.
- 정원식 외. 『이 시대의 자녀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정정숙.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4.
- 정정숙. “기독교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성경적 가정 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4.
-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 조옥라.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의 역할”.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위원회 편. 『부모 교육 프로그램 탐색』. 서울: 창지사, 1988.
- 한숙자 · 박미하. “청소년 죽음 준비교육을 위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2권(2009).
- 홍인중. 『청소년 위기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Adelson, Joseph. “Adolescence and the Generalization Gap.” *Psychology Today* 12 (February 1979): 33-37.
- Barna, G. *Real Teens: A Contemporary Snapshot of Youth Culture*. Ventura, CA.: Regal Books, 2001.
- Bigner, J. J. *Parent-Child Relation: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3rd ed. New York: Macmillan, 1989.

- Carver, Charles S. & Scheier, Michael F. *Perspectives on Personality*. 김교현외 역. 『성격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rev. 3d ed.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크리스천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2008.
- Dreikurs, R. *Coping with Children's Misbehavior*. New York: Hawthorn Books, Inc., 1972.
- Elder, G. "Structural Variations in the Childbearing Relationship." In *Sociometry*. New York: Norton, 1962.
- Eric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Evans, D. L., Foa, E. B., Gur, R. E., Hendin, H., O'Brien, C. P., Seligman, M. E. & Walsh, B. T. *Treating and Preventing Adolescent Mental Health Dis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5.
- Gordon, T. J. *Parent Involvement in Compensatory Education*.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1.
- Lane, Timothy. & Tripp, Paul D. *How People Change*. 김준수 외 역.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Nicholi, Armand M. Jr. ed. *The Harvard Guide to Modern Psychiatr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Pelt, Rich Van. *Intensive Care Helping Teenagers in Crisis*. 오성춘, 오규훈 역. 『사춘기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Powers, S. I., Hauser, S. T. & Kilner, L. A. "Adolescent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4 (1989): 200-208.
- Powlison, David. *Seeing with New Eye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3.
- Powlison, David. *Seeing with New Eyes*. 김준 역.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 서울: 그리심, 2009.
- Strommen, Merton P. *Five Cries of Youth*.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 1988.
- Tripp, Paul D.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4.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2003.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황규명 역.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서울: 디모데, 2007.
- Welton, G. I. "Adolescence."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and Counseling*. eds. D. G. Benner & Peter C. Hill. Grand rapids, MI.: Baker, 1999.

【 Abstract 】

Illumination of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n terms of Christian Counseling

**Hyung Joon Jun**

Centra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desirable roles of parents for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n terms of Christian counseling. Having a biblical view of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s very important. In this respect, in this study, diverse studies of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were reviewed and strategies for the meaning of homes, a biblical understanding of adolescent, desirable roles of parents and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with the understanding of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nd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counseling. Based on the results, it was known that, since problems are in parents' distorted views of children and educational views, education of parents is indispensable. It was known that,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counselling, home is the stage of basic education and that the roles of homes are important as theological communities, social communities and communities for binding. From a biblical viewpoint,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the roles of parents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could be also known. In this regard, it was also known that, since adolescents are insensitive to the problems of minds, parents should bring up their children focusing on changes in their children's minds. As strategies for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n terms of Christian counseling, I proposed to first, bring up children with plans, second, continuously talk with children and third, lead teenagers to repentance. To this end, I suggested a direction to go as stage 1: reflection, stage 2: confessions, stage 3: vows and stage 4: changes. Studies attempting approaches to educ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n terms of biblical counseling should be continued hereafter.

**Key words:** adolescent, home, education of children, parents' role, Christian counseling

